



## 두 개의 노벨상 '5·18 광주'에 위로를 건네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이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5·18 트라우마'·소외 간직한 호남인들에 특별한 감동 안겨  
김상욱 교수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우리는 광주에 빛졌다"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팍 막힌 국내의 정치적 상황들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한강의 수상 소식은 가슴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김상욱 경희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나라에 주어진 노벨상 2개 모두 광주와 관련된 것이다. 적어도 노벨상 수상위원회라는 틀로 본 서구인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 중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광주였다는 뜻"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광주에 빛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주가

흘린 피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아직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광주에 빛지게 되었다. 기본 좋은 빛"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강의 작품은 광주 역사적 아픔과 고통, 슬픔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문순태 작가는 이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곡진한 위무"라고 했다. 문 작가는 "잔인한 국가 폭력으로 지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광주를 한강 작가는 특유의 시적인 문체로 그려왔다"며 "지역민 나아가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세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0년 10월 13일, 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에도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열사 안고 눈물을 흘렸다. 모진 박해와 투옥, 사형선고까지 받은 DJ의 정치 역정을 지역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DJ와 한강은 그렇게 소외와 아픔, 고통과 박해의 상징 '광주'를 세계에 알리며 용서와 화해의 정신,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와 울림있는 서사로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스웨덴의 한림원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 이유에 대해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강 노벨문학상 기념 전남도 '박람회' 개최 광주시, 다채로운 행사

광주·전남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박람회와 문학 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축하 기념 행사도 추진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매년 '전남도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 출신의 세계적 지도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번째 노벨상 수상이자, 노벨문학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특별한 작품세계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그는 또 "전남은 조선시대 윤선도, 정철, 김인후 선생부터 김남주, 조정래, 이청준, 김영랑, 박화성, 한승원, 한강 작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정신적 토양이 된 문학의 고장"이라며 "앞으로도 면면히 이어진 문학 정신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깊이를 더 하도록,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 매년 '전남도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문학관광여행특구'로 지정된 장흥군도 문학기념관 건립 임정을 밝혔다. 장흥은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를 비롯, 이청준, 송기숙, 이승우, 위선환, 김영남, 이대흠 등 문학인을 배출한 지역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은 한강 작가가 어린시절부터 시간을 보내며 문학적 정서를 형성한 곳"이라며 "한승원, 한강 작가의 부친 문학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의 고향 광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한강 읽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노벨상 수상 축하·기념행사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립 도서관과 광주문학관 등에서 '시민과 함께 한강 읽기' 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 그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지난해 개관한 광주 문학관을 활용해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전시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중흥동에서 태어나고 효동초등학교를 다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광주 북구 출신 소설가 한강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현수막을 청사 전면에 게시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뜨거운 군수선거, 사전투표율 영광 43%·곡성 41%

10·16 재·보선 지역 중 최고  
10·16 영광·곡성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막판 선거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16 재·

보궐선거 영광·곡성 최종 사전투표율은 42.49%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유권자 4만5248명 중 1만94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43.06%를 기록했다.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시 41.44%로, 유권자 2만4640명 중 1만211명이 참여했다.

영광·곡성과 함께 재선거를 하는 부산 금정구청장 사전투표율은 20.63%, 인천 강화군수 사전투표율은 27.90%,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율은 8.28%에 머물렀다. 영광·곡성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대표들이 후보와 함께 선거전에 뛰어드는 등 3파전 구조를 형성하면서, 유권자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전투표에 이어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초빙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KENTECH을 인류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덕망 높은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응모자격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교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역량을 갖춘 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세계 일류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추진력이 있는 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관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board@kentech.ac.kr) 제출
- 제출 마감: 2024. 11. 1.(금) 18:00까지(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우)58330 전남 나주시 켄텍길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동 B-309 이사회사무국
- 문의처: (Tel) 061-320-9500 or 9503 / (E-mail) board@kentech.ac.kr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A4 5매 이내) 1부
- KENTECH 운영 및 경영혁신 소견서(A4 5매 이내)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자 사전 질문서 1부

※ 양식은 KENTECH 대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www.kentech.ac.kr → NEWS → NOTICE)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